

KIA, 집요해진 경기력...5강 '맹추격'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18 프로야구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KIA 타이거즈 대 삼성 라이온즈 경기, 18대3으로 승리를 거둔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마운드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

KIA 타이거즈가 역전의 명수가 되고 있다. KIA는 KBO리그 재개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9월 첫 주에는 4승2패, 두 번째 주는 3승2패로 모두 주간 승률 5할을 넘겼다. 2주 동안 7승4패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 한복판에 역전쇼가 자리잡고

있다. 7승 가운데 5승을 역전으로 일구었다. 그만큼 선수들의 근성과 집중력이 좋아졌다. KIA는 리그 재개 첫 경기였던 지난 4일 두산과의 잠실경기에서 1-3으로 뒤진 8회초 대거 9점을 뽑아내는 괴력을 과시하며 10-5로 역전승을 거두었다. KIA는 최강 두산에게 8승7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첫

KBO리그 재개 이후 상승세 유지 경기력 완전 달라져 '역전의 명수'

경기 역전쇼의 흐름은 계속 이어졌다. 6일 넥센과의 광주 홈 경기에서도 초반 타선이 터지지 않으며 1-2로 끌려갔다. 그러나 8회말 안치홍의 역전 만루홈런을 포함해 4안타와 3볼넷을 묶어 대거 6득점, 경기를 뒤집었다. 화끈한 역전쇼로 7-2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에 올랐고 연승을 따냈다. 그러나 9일 삼성과의 광주경기에서 한승택의 만루홈런으로 4-0 리드를 잡았지만 역전패를 당해 상승세가 꺾였다. 더욱이 이번주는 NC와의 마산 2연전을 모두 내주며 3연패로 몰렸다. 더욱이 롯데와의 14일 시작경기도 5회까지 1-5로 끌려갔지만 후반 공세를 펼쳐 9-5로 뒤집기 승리를 따냈다. 15일 SK 광주경기에서는 변비타

신이 되면서 8회초까지 0-2로 패색이 짙었다. 그러나 8회말 단 한번의 공격에서 상대 수비의 실책과 버나디나의 역전 2타점 적시타를 앞세워 4득점, 2경기 연속 역전승을 따냈다 이어 16일 경기도 4-6으로 지던 9회말 1사후 나지완이 동점투런포를 터트렸고 연장전에서 끝내기 안타로 3연속 역전쇼를 연출했다. 리그 재개 이전에 KIA는 역전승이 많지 않았다. 리드를 내주면 그대로 승기를 건네는 경기가 많았다. 팽팽한 접전을 벌이다 후반에 실점하고 무너졌다. 그러나 9월들어 경기력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붙고 늘어지는 근성이 생기고 있다. 5위 LG와 2경기차에 접근한 비결이었다.

전북 한교원, K리그 28라운드 MVP

제주와 홈경기서 1골3도움 '도움 해트트릭' 맹활약

1골 3도움의 압도적 경기력을 보인 전북 한교원이 KEB하나은행 K리그 2018 28라운드 MVP로 선정됐다. 한교원은 지난 1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 2018 28라운드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1골 3도움의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4-0 완승을 이끌었다.



올 시즌 리그 14경기에 출전해 5골 5도움을 기록중인 한교원은 최근 불운한 경기력으로 선두 전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북은 이날 승리로 승점 66점, 2위 경남과의 격차를 16점으로 벌리며 선두를 유지했다.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은 외국인 공격수들이 차지했다. 주니오(울산)와 에드카(대구)가 선정됐다. 베스트 미드필더에는 한교원(전북)을 비롯해 심동운(상주), 세징야(대구), 이상현(전남)이 이름을 올렸다. 베스트 수비수로는 김진야(인천), 부노자(인천), 최보경(전북), 장성원(대구)이 뽑혔다. 베스트 골키퍼는 최영은(대구)이다.

베스트팀 전북, 베스트매치는 전남-경남전이다. 한편 KEB하나은행 K리그 2018 28라운드 MVP로는 아산 박주원이 선정됐다. 아산의 주전 골키퍼 박주원은 15일 아산 아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광주와의 홈경기에서 수차례 좋은 선방을 보였다. 아산은 박주원의 맹활약으로 광주와 치열한 접전에서 1-0으로 승리했다.



황희찬, 독일 진출 2경기 만에 데뷔골

소속팀 함부르크 1-0 승리...선두 도약

황희찬(22·함부르크)이 독일 무대 진출 후 2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뜨리며 소속팀 함부르크의 선두 도약을 이끌었다. 황희찬은 19일(한국시간) 독일 드레스덴의 DDFV 스타디움에서 열린 디나모 드레스덴과의 2018~2019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2부리그(2부리그) 5라운드에서 후반 23분 결승골을 터뜨려 함부르크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4승(1패 승점 12)째를 신고한 함부르크는 1위로 올라섰다. 지난달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에서 함부르크로 임대된 황희찬은 데뷔 2경기 만에 첫 골을 결승골로 선사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황희찬은 지난 15일 하이덴하임과의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함부르크는 과거 손흥민(토트넘)이 뛰었던 팀으로 국내 팬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1963년 분데스리가 출범 후 1부리그 무대를 누비던 함부르크는 지난 시즌 17위에 그쳐 처음으로 2부리그에 강등됐다.

뉴스스



벤투 감독, 한국 축구 미래와 만난다

오늘 U-23 김학범 · U-19 정정용 감독 만나 회의

한국 축구의 현재와 미래인 A대표팀과 23세 이하(U-23), 19세 이하(U-19) 대표팀의 감독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대한축구협회는 2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파울루 벤투(49) A대표팀 감독, 김학범(58) U-23 대표팀 감독, 정정용(49) U-19 대표팀 감독이 모여 회의를 한다고 18일 전했다. 벤투 감독은 장기적으로 2022 카타르월드컵, 김학범 감독은 2020 도쿄올림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만남은 상경례 성격이 짙다. 벤투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후 처음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벤투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7일 코스타리카, 11일 칠레와 평가를 치렀고 김 감독은 자카르타·팔렘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지도한 후 휴식을 가졌다. A매치 현장을 찾아 경기를 지켜봤다. 벤투 감독과 김 감독은 이번 만남에서 향후 국가대표 차출 등 각급 대표팀의 협력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A대표팀은 내년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U-23 대표팀은 내년 3월 AFC U-23 챔피언십 예선을 앞두고 있다.

뉴스스

벤투호 10월 A매치 서울과 천안으로 확정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10월 친선경기 장소가 확정됐다. 우루과이전은 서울월드컵경기장, 파나마전은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오후 벤투호의 10월 친선경기 장소를 확정해 발표했다. 벤투호는 10월 1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루과이, 10월 16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파나마와 각각 격돌한다. 경기 시작은 모두 저녁 8시다. 특히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위인 우루과이는 루이스 수아레스(바르셀로나), 에딘손 카바니(파리

생제르맹)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북중미 팀인 파나마는 FIFA 랭킹 69위다. 벤투 감독은 지난 7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대표팀 감독 데뷔전을 치렀다. 1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칠레와의 친선전에는 4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모여 경기를 지켜봤다. 우루과이전이 열리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은 6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경기장이다.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A매치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8월 이란과의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 이후 처음이다.

뉴스스

지역광고·마케팅·정문디자인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 숲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칠새미골, 화연사, 설진강, 운조루, 패야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물어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